**전도서** 12/27/2019

**저자와 기록연대**: 솔로몬으로 추정됨 (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, 1:1,12,16; 2:4-9; 7:26-29; 12:9). 주전 10세기 (주전 930년 경).

**기록 목적**: 저자 솔로몬은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여정을 살피는 순례자의 입장에서 인생을 논한다. 하나님 없는 ‘해 아래의 삶’과 ‘하나님 아래의 삶’을 비교하면서,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어리석음을 탓하며, 이 모든 희망과 기대는 헛된 것,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한다 (1:14 2:11 등).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정하셨으므로 (3:1-15, 5:19, 6:1-2, 9:1),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쁨으로 누려야 한다.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없다 (2:24-26). 늙은 솔로몬(12:1)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철학적, 신학적 결론을 내린다.

**개요**

1. 서론 (1-2장): 인생 무상

2. 시: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 (3장)

3. 부정의한 사회 (4장)

4. 허무한 인생 (5-7장)

5. 유한한 인생 (8-9장)

6. 잠언: 지혜와 어리석음 (10장)

7. 현재와 미래를 위한 충고 (11:1-12:8)

8. 결론 (12:9-14): 여호와를 경외하라